

연구보고서 97-3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

1997.



韓國國際協力團 研究室
권영복 차장.

* 리원재

목 차

I 용어의 개념

1. 국제협력과 경제협력
2. 공적 개발원조의 정의
3.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

II. OECD의 ODA현황

1. 기본정책 방향
 - OECD 역할과 기본정책
2. 공적 개발원조 (ODA)의 규모
 - 가. 개도국 개발을 위한 ODA 동향
 - 나. 전체 ODA 규모
 - 다. DAC 회원국의 ODA 규모
 - 라. DAC 비회원국의 ODA규모
3. 공적 개발원조의 유형별 규모
 - 가. ODA의 구조
 - 나. 양자간 ODA 규모
 - 다. 다자간 ODA 규모

III. 우리나라의 ODA 현황

1. 공적 개발원조의 역사
 - 가. 수혜국
 - 나. 공여국
2. 기본 정책방향
3. 공적 개발원조의 운용 체계
4. 공적 개발원조의 규모
 - 가. ODA의 동향
 - 나. 전체 ODA 규모

5. 공적 개발원조의 유형별 규모

가. 양자간 ODA 규모

- 1) 양자간 무상 ODA
- 2) 양자간 유상 ODA

나) 다자간 ODA 규모

- 1) 국제기구예의 증여
- 2) 국제 금융기관예의 출자 및 유사증여

IV. 우리나라 ODA 규모의 문제점

1. 정책의 미비

가. 기본정책의 미비

나. 중장기 ODA 사업계획의 부재

다. ODA 정책수립 및 집행기관의 분산

2. 공적 개발원조의 양과질 저조

가. ODA의 규모

나. ODA의 질

3. ODA규모 증대의 제약

가. IMF 체제의 경제성장

나. 국가 안보체제

V.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적정 ODA 규모

1. 적정 ODA 규모

2. 적정 유형별 ODA 규모

<참 고>

1. 경제기획원 「개도국 경제협력보고서」 1988 - 1993
2. 김학수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중. 장기 경제협력방안」
정책연구, 90-07 대한경제 정책연구원, 1990. 10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과제와 방향」, 정책연구 90-11,
대한경제정책 연구원, 1991. 7
3. 윤해진 「우리나라 원조정책의 방향과 과제」, 연구논문,
KOICA 1993. 9.
4. 이창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연구, 대한경제연구원,
1995. 10.
5. 지용기 「한국의 개도국 원조정책」, KOICA, 1995 증보판
6. KOICA, 「우리나라의 적정 ODA 수준과 원조방식」,
국제협력연구토론회, 1993. 11
「OECD/DAC 국가의 원조정책 및 현황」, 1995. 6
7. 한국수출입은행 「주요국의 공적개발원조 제도」, 1994. 12
8.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xport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88 DAC Report-1996
DAC Report.
9. The Annual Report of the OECD, 1995 : Seretary General, 1996

I. 용어의 개념

1. 國際協力과 經濟協力

일반적으로 國際協力이란 國家間 및 國家와 國際機關間的 모든 有·無償 基本協力, 交易協力, 技術 및 人力協力, 社會文化協力 등 國際社會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交流를 總體的으로 지칭하는 概念이다.

그러나 國際協力이란 用語는 원조 및 經濟協력과 類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 국제협력은 援助나 經濟協力에 비해 더욱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아울러 協力分野를 經濟領域으로 한정하지 않고 社會, 文化로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¹⁾

經濟協力は 보통 投資 및 資本協力 등을 일컫지만 廣義로는 貿易을 포함한 모든 經濟交流를 지칭하는 概念으로 쓰이기도 하며, 때로는 대개도국 經濟協力的 Zulimmal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원조 혹은 公的開發援助와 동의어로 經濟協력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開途國의 일원이라는 점과 우리의 公的開發援助의 經濟的 호혜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²⁾

이와같이 國際協力이나 經濟協력이 다수의 概念으로 함축함으로서 발생하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들 용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그 대신 다소 생소하고 건조하나 그 뜻이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1) 「1993년도 한국국제협력단년보」 1994. p15.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협력을 狹義로 개도국, 동구권국가 등 특정협력대상 국가들의 복지향상 및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우리의 인력과 자본 및 機資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있음.

2) 김학수 「우리나라의 對開途國中·長期 經濟協力方案」 정책연구 90-07,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1990. 10, pp 11-12.

用語를 사용할 것이며, 開發國의 발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協力을 총칭하기 위해서는 開發協力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겠다.

2. 公的開發援助의 定義³⁾

公的開發援助 관련한 情報의 수집이나 關聯 政策協議 및 政策調整 등 全世界의 開發援助에 관한 모든 分野에서 中心的 役割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內 開發援助委員會(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가 擔當하고 있다. DAC는 會員國을 비롯하여 일부 非會員國 및 國際機關 등으로부터 開發國에 주어지는 各種 財源의 흐름을 把握하고 아울러 會員國間 開發援助 政策에 대한 協議 및 調整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開發援助에 대한 規模 및 나아갈 方向을 제시함으로써, DAC 會員國뿐 아니라 國際機關 및 非會員國에게도 開發協力에 관한 先導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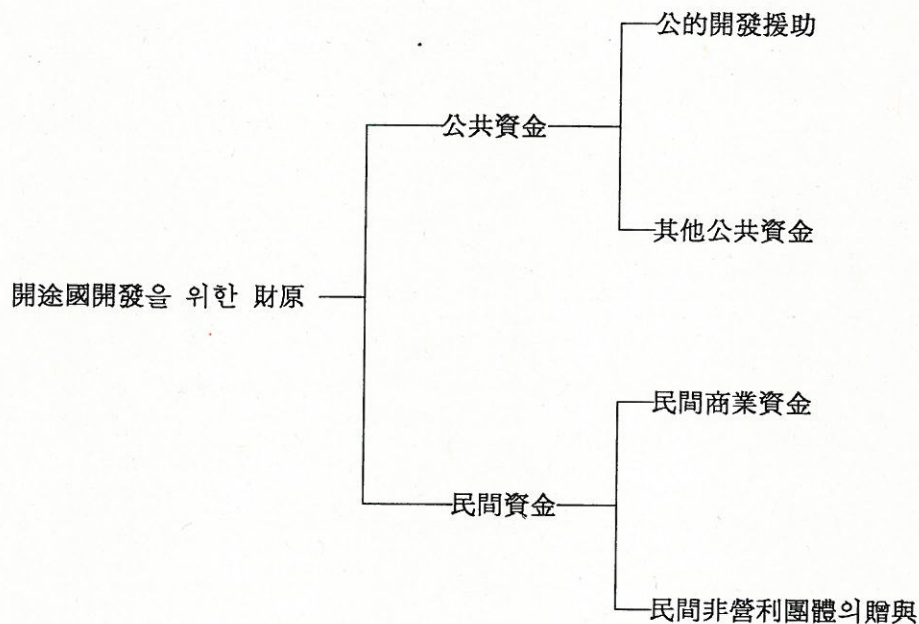
DAC는 開發國의 開發에 기여하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集計하고 그 性格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DAC는 開發國에 주어지는 財源을 제공주체에 따라 公共資金 및 民間資金으로 나누며 자금의 양허성(Concessional Aid) 여하에 따라 援助와 非援助로 구분한다. 그리고 수집된 統計가 각국의 開發協力 狀況을 分析評價하는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분류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3)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1997 : OECD, DAC Statistical Reporting Directives, 1989, pp. 5-16 : Cassen, R.& Associates, Does Aid Work : Report to on Intergovernment Task Force, Second Edition, Oxford : Clarendon Press, 1994, pp 2-4.

<圖 1>에서 보는바와 같이 公的開發援助(ODA)는 開途國의 開發에 필요한 財源中에서 民間이 아닌 公的機關에서 行한 원조를 가르키는 것이다.

ODA를 보다 구체적으로 定義하기 위하여 DAC는 開途國에 주어지는 資金이 ODA로 分類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條件을 充足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그 제공주체가 公的機關이어야 한다. 둘째, 그 主目的이 經濟開發 및 福祉의 增進에 있어야 한다. 셋째, 讓許性を 띠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贈與率(Grant Element) 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圖 1> 開途國開發을 위한 財原



따라서 일반적으로 ODA가 對外援助 대명사로 쓰임에도 불구하고 民間非營利團體(Non Government Organizations : NGOs)로 부터의 지원은 ODA에서 除外되며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직접적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군사장비구입관련 지원, 종교적목적,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의 자금도

ODA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贈與 및 借款의 경우 讓許性を 측정하기 위해서 贈與率이라는 技術的手段이 使用되는데 이 증여율의 計算에는 利率, 償還期間, 据置期間 등이 考慮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작업을 거쳐야 한다.⁴⁾

증여나 차관과 같은 財政援助外에도 食糧援助 및 技術協力 등이 ODA에 속한다. 技術協力は 거의 無償으로 行하여지며 開途國 및 外國에서 開途國 사람들에 대한 敎育이나 訓練을 위한 費用 및 부대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ODA分類中 債務免除의 처리문제는 다소 복잡함이 있다. 왜냐하면 1992년까지는 ODA로 분류되었으나 1993년부터는 軍事目的으로 주어진 債務의 免除는 其他公共資金(Other Official Flows : OOF)으로 분류되고 輸出信用과 같은 여타 ODA가 債務의 免除는 1989년 以前과 같이 國別 및 DAC의 合計에서도 ODA로 기록되고 있다.

3. 우리나라 ODA의 適正규모

ODA의 적정규모에 있어 OECD/DAC의 制度的 觀點에서

살펴볼 때 한마디로 ODA의 適正規模란 없다.

다만 各國의 經濟力과 國民輿論 등을 勘案한 政府의 意志에 따라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ODA의 적정규모란 “우리나라 實情에 알맞는 開途國 支援의 量的인 規模라 할수있겠다.

우리나라의 實情을 論함에 있어서는 1995년 基準 交易規模 2800

4) 증여율 공식은 羅元燦, 宋河律.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開發援助政策」 産業研究院, 1989. 11. p. 39참조.

억불로 세계 12위라 하여 단순히 산술적 개념만이 적용되어 저서는 안된다. ODA의 규모에 있어서 OECD의 强制性을 갖는 국제적 規制는 없으며 OECD는 Recommendation에 그치고 있다. ODA에 대한 권고수준으로는 GNP 대비 0.7%의 ODA규모가 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DAC會員國이 이러한 권고 사항을 嚴格히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 DAC 회원국중 ODA 규모가 제일큰 일본도 GNP대비 ODA는 '95년도에 0.28%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先秦 DAC 會員國의 ODA 規模를 볼 때 우리나라의 적정 ODA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國外的 環境要因보다는 국내적 경쟁 요인을 집중적으로 검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적 환경요인으로는 첫째 우리나라는 '97. 12월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하여 긴축재정, 고실업, 저성장등이 예상되는 큰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으며 둘째 '96. 12월 OECD 회원국이 되었다고는 하나 이제 개도국 협력이 초보단계로 국내 S.O.C 투자가 時急한 실정에 있고 셋째 경제성장에 따른 교역규모는 세계 12위('95)였으나 생존경쟁적 차원의 양적확대로 경제구조가 취약함을 간과 해서는 안되며 넷째 세계속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과 북이 정전 중으로 대치되고 있는 점등은 ODA 규모를 산정하는데 있어 重要な 要素로 作用 되어져야 한다.

II. OECD의 ODA 현황

1. OECD의 役割과 基本政策 方向

OECD협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OECD의 活動中の 하나가 開途國에 對한 원조체제를 개선시키는 것이며 개도국에 대한 資本移轉을 통해 OECD 회원국과 開途國의 經濟發展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OECD 設立을 準備한 각료회의 역시 1960년 Resolution을 채택하여 開途國에 對한 원조가 OECD의 重要的 目的중의 하나라고 確認하고 있으며, 이러한 任務를 專担할 DAC의 役割은 OECD 設立을 擔當한 준비위원회 Report에 規程되어 있는데 이 規程에 따르면 DAC는 경제개발과정에 있는 국가와 지역을 원조하고 장기자금의 흐름과 다른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增進시키기 위해 國家資源을 活用하는 方法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DAC의 活動方式은 크게 3段階로 이루어진다.

첫번째 단계로는 기본적인 事實確認 작업을 하는데 이에 따라 各會員國의 구체적인 援助規模에 對한 Data를 수집하여 公的資金의 提供條件을 調節하여 開途國의 부채상환 및 이에 關한 統計를 作成한다.

두번째 단계로는 개도국의 開發을 위한 특정문제를 討議하여 공동의 援助政策과 方向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단계로는 이러한 공동정책의 施行을 위하여 勸告(Recommendation)를 채택하여 각회원국의 원조이행을 評價할 수 있는 基本的 틀을 마련하는 등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또한 DAC는 開發國에 對한 일정 水準의 援助를 實施하도록 勸告하고 있다. DAC의 活動目標은 開發國에 援助規模를 增大시키고 個別受援國의 必要性에 따라 援助의 條件과 形態를 適合化시키며 開發援助를 增進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目標에 따라 DAC는 開發國을 援助하고 長期資金의 흐름을 확대하고 增進시키기 위하여 國家資源을 活用하는 方法에 對해 자문하는 권한을 負與받고 있다.

따라서 DAC는 DAC 회원국들에게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分担金을 各國 GNP의 0.7%에 도달하도록 정하였으나 이는 勸告事項으로 法的인 強制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부분의 會員國이 이러한 勸告사항을 嚴格히 준수하고 있지는 않다.

DAC에는 OECD 가입과 관계없이 우선 加入할 수 있으며, OECD에 加入하더라도 DAC 加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DAC에 加入하려면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⁵⁾

첫째는 援助受惠國 지위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OECD 일부회원국은 수혜국인 동시에 供與國地位에 있는데, 이 경우에는 受惠國 List에서 削除되어야 DAC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ODA 規模에 있어서 최소한 GNP의 0.2% 이상은 되어야 한다. 셋째는 중기계획상 政府支出 豫算에서 ODA 비율이 DAC 회원국 평균 (0.33%)에 도달할 것을 約束해야 한다.

5) 가입조건에 관한 DAC의 명문상의 규정은 없지만 DAC의 최근까지의 선례 등을 감안하여, KOICA 한우석 상임고문의 OECD 방문시 OECD 사무국내 개발협력국 Bartsch 과장이 밝힌 견해이다. 한우석「프랑스출장보고서」, KOICA, 1993. 10.참조.

2. 公的開發援助 (ODA)의 규모

가. 開途國開發을 위한 ODA 동향 ⁶⁾

개도국 개발을 위한 財源의 純 흐름은 1987年 이래 1995년까지 대체적으로 增加勢를 보이고 있으며 1987年の 858억불 대비한 1995년의 자금의 흐름은 2393억불로 무려 2.8배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93년의 한 해동안 무려 641억불의 增加規模를 보이므로써 公的開發援助에 대한 支援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公的開發金融과 (ODF : Official Development Finance)과 民間資金의 상대적 중요도가 1992년부터 資金의 흐름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民間資金은 절대 금액면에서 1987년 307억불에서 1995年 1589억불로 무려 5배이상 확대 되었으며 특히 直接投資金額이 每年 持續적으로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民間資金의 흐름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事實은 民間資金이 몇몇 소수국가 특히 비교적 부유한 開途國이나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 같은 大規模 經濟에 集中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가난한 국가들은 純概念 측면에서 볼 때 民間資金의 유입이 거의 없거나 매우 소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最貧國의 경우에는 非營利 民間團體의 원조가 거의 전부인 형편이다.

低所得國에 대한 財源의 유입은 實質水準을 基準으로 1990年 以後 減少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상당량이 中國에 집중되고 있음을 考慮할 때 中國을 除外한 저소득국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民間資金의 對低所得國에 對한 소외현상이 가까운 장래에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되므로 對最貧國 및 低所得國의 開發에

6) 世界 財源의 推移는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1997. 에 근거한 것임.

必要한 財源調達問題가 對開途國 開發財源에 關한한 最大 課題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表 1> 對開途國 開發財源의 純 흐름

(10억달러:%)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 ODF	56.7 (66.1)	61.4 (62.6)	61.1 (52.7)	69.8 (55.3)	69.7 (57.0)	69.8 (47.3)	70.1 (45.0)	71.6 (33.3)	69.4 (28.9)
· ODA	43.9 (51.2)	47.9 (48.7)	49.0 (42.3)	52.9 (41.9)	58.6 (47.9)	58.9 (39.9)	56.4 (36.2)	60.5 (28.1)	60.1 (25.0)
其他 ODF	12.8 (14.9)	13.5 (13.7)	12.1 (10.4)	16.9 (13.4)	11.1 (9.1)	10.9 (7.4)	13.7 (8.8)	11.1 (5.2)	9.3 (3.9)
2. 수출신용	-1.6 (-1.9)	-2.2 (-2.2)	9.4 (8.1)	4.7 (3.7)	1.8 (1.6)	1.3 (0.9)	-0.6 (-0.4)	9.3 (4.3)	11.0 (4.6)
3. 민간자금	30.7 (35.8)	39.1 (39.8)	45.5 (39.2)	51.8 (41.0)	50.8 (41.4)	76.8 (51.8)	86.4 (55.4)	134.1 (62.4)	158.9 (66.5)
· 직접투자 (OECD)	19.4 (22.6)	21.8 (22.2)	26.5 (22.8)	26.4 (20.9)	22.6 (18.5)	27.3 (18.4)	38.6 (24.8)	48.5 (22.6)	53.6 (22.4)
· 은행차관	7.0 (8.2)	7.8 (7.9)	10.5 (9.1)	15.0 (11.9)	11.0 (9.0)	31.0 (21.0)	9.0 (5.8)	42.6 (19.8)	70.0 (29.3)
· 채권발행	-1.0 (-1.2)	1.6 (1.6)	2.2 (1.9)	0.9 (0.7)	6.5 (5.3)	11.1 (7.5)	29.0 (18.6)	29.0 (13.5)	19.3 (8.1)
· 기타민간 상업자금	1.3 (1.5)	3.7 (3.8)	2.3 (2.0)	4.4 (3.5)	5.3 (4.3)	1.4 (0.9)	4.0 (2.5)	8.0 (3.7)	10.0 (4.2)
· 민간원조	4.0 (4.7)	4.2 (4.3)	4.0 (3.4)	5.1 (4.0)	5.4 (4.4)	6.0 (4.0)	5.8 (3.7)	6.0 (2.8)	6.0 (2.5)
합 계 (자금의순흐름)	85.8 (100)	98.3 (100)	116.0 (100)	126.3 (100)	122.3 (100)	147.8 (100)	155.9 (100)	215.0 (100)	393.3 (100)
<1994년가격및활동> 자금의순흐름	114.4	121.5	144.8	141.4	132.2	150.8	162.5	215.0	218.5
· ODF	75.5	75.9	76.3	78.1	75.4	71.2	73.1	71.6	63.4
· ODA	58.5	59.2	61.2	59.2	63.4	60.1	58.8	60.5	54.9

註 1. 對開途國 開發財源의 純 흐름은 수혜국인 開途國의 입장에서 集計된 것임.

2. 괄호안의 숫자는 對開途國 資金의 純흐름에서 차지하는 比重(%)임.

資料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1997. Statistical Annex. A1-A2.

나.全體 ODA 규모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額面에서 ODA는 1987년 439억달러에서 꾸준히 增加하여 1995년 589억불로 절대금액이 增加하였다. 이 기간중 1993년에는 1992年보다 25억불이 감소한 564억불, 1995년에는 1994年보다 4억불이 감소한 601억불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表 1>에서와 같이 1987년이래 ODA의 절대금액은 점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DA가 開發國 開發을 위한 전체財源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87年 51.2%에서 1995년 25.0%로 每年 持續적으로 OAD 比重이 下落하고 있다.

다. DAC 會員國의 ODA 규모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전체 ODA에서와 마찬가지로 DAC 會員國의 ODA 水準도 金額面에서 계속 增大되어 1992년에는 608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1995년에는 588억 9천 4백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1993년도에 564억 9천 8백만 달러로 급격히 減少되었다가 1994년에 다시 591억 5천 6백만 달러로 增加하였다가 1995년에 다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DAC 會員國 ODA 規模가 GNP에서 점하는 比重을 살펴보면 1979년 이래 1992년까지 그 수준이 상당히 안정되어 왔음이 드러난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DAC 회원국 ODA의 GNP 대비 비율은 1979년부터 1988년 까지는 平均 0.34%였던 것이 1989년에 0.32%로 떨어졌다가 1990년에서 1992년에 다시 0.33%로 높아졌다. 1993년에는 ODA 규모가 金額面에서 전년대비 4.2% 감소하면서 GNP 對比 ODA 비율도 2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0.30%로 떨어졌다. 1994年度에는 ODA규모가 金額面에서 전년보다 7.3% 增加하였으나 GNP 대비 ODA 비율은 前年水準인

0.30%였으며, 1995년도에는 ODA 규모가 1994년보다 金額面에서 0.7% 減少하면서 GNP 대비 ODA 비율은 DAC創設 이래 最下水準인 0.27%로 떨어졌다.

<表 3> 는 DAC 회원국의 ODA推移, <表 4>는 ODA 會員國의 GNP 對比 ODA 比重을 國別로 보여주고 있다.

<表 2> DAC 회원국 ODA 規模

年 度	1973-83	1984-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ODA規模 (ODA/GNP%)	0.34	0.34	0.32	0.33	0.33	0.33	0.30	0.30	0.27

(%)

資料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1997. Statistical Annex, A₇ - A₈.

<表 3> DAC會員國의 ODA推移

(백만달러)

	1984-1985 평균	1990 ^a	1991 ^a	1992 ^a	1993	1994	1995
호주	763	955	1,050	1,015	953	1,091	1,194
오스트리아	215	394	547	556	544	655	767
벨기에	443	889	831	870	810	726	1,034
캐나다	1,628	2,470	2,604	2,515	2,400	2,250	2,067
덴마크	444	1,171	1,200	1,392	1,340	1,446	1,623
핀란드	194	846	930	644	355	290	388
프랑스	3,080	7,163	7,386	8,270	7,915	8,466	8,443
독일	2,862	6,320	6,890	7,583	6,954	6,818	7,524
아일랜드	37	57	72	70	81	109	153
이태리	1,115	3,395	3,347	4,122	3,043	2,705	1,623
일본	4,058	9,069	10,952	11,151	11,259	13,239	14,489
룩셈부르크	8	25	42	38	50	59	65
네덜란드	1,202	2,538	2,517	2,753	2,525	2,517	3,226
뉴질랜드	54	95	100	97	98	110	123
노르웨이	557	1,205	1,178	1,273	1,014	1,137	1,244
포르투갈	9	148	213	302	248	308	271
스페인	152	965	1,262	1,518	1,304	1,305	1,348
스웨덴	790	2,007	2,116	2,460	1,769	1,819	1,704
스위스	294	750	863	1,139	793	982	1,084
영국	1,480	2,638	3,201	3,243	2,920	3,197	3,157
미국	9,057	11,394	11,262	11,709	10,123	9,927	7,367
DAC 합계	28,443	52,961	56,678	60,850	56,498	59,156	58,894

註 : a) 非 ODA負債의 免除를 包含한 것임(단, DAC합계에서는 제외)

資料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1997, Statistical Annex, A7-A8.

<表 4> DAC 會員國 GNP 對比 ODA 比重

(%)

	1984-1985 평균	1990 ^a	1991 ^a	1992 ^a	1993	1994	1995
호주	0.47	0.34	0.38	0.37	0.35	0.34	0.36
오스트리아	0.33	0.25	0.34	0.30	0.30	0.33	0.33
벨기에	0.56	0.46	0.41	0.39	0.39	0.32	0.38
캐나다	0.50	0.44	0.45	0.46	0.45	0.43	0.38
덴마크	0.83	0.94	0.96	1.02	1.03	1.03	0.96
핀란드	0.38	0.65	0.80	0.64	0.45	0.31	0.32
프랑스	0.62	0.60	0.62	0.63	0.63	0.64	0.55
독일	0.46	0.42	0.40	0.38	0.36	0.34	0.31
아일랜드	0.23	0.16	0.19	0.16	0.20	0.25	0.29
이태리	0.27	0.31	0.30	0.34	0.31	0.27	0.15
일본	0.31	0.31	0.32	0.30	0.27	0.29	0.28
룩셈부르크	0.16	0.21	0.33	0.26	0.35	0.40	0.36
네델란드	0.97	0.92	0.88	0.86	0.82	0.76	0.81
뉴질랜드	0.25	0.23	0.25	0.26	0.25	0.24	0.23
노르웨이	1.02	1.17	1.13	1.16	1.01	1.05	0.87
포르투갈	0.05	0.25	0.31	0.36	0.29	0.35	0.27
스페인	0.09	0.20	0.24	0.27	0.28	0.28	0.24
스웨덴	0.83	0.91	0.90	1.03	0.99	0.96	0.77
스위스	0.30	0.32	0.36	0.45	0.33	0.36	0.34
영국	0.33	0.27	0.32	0.31	0.31	0.31	0.28
미국	0.24	0.21	0.20	0.20	0.15	0.14	0.10
DAC 합계	0.34	0.33	0.33	0.33	0.30	0.30	0.27

註 : a) 非 ODA 부채의 면제를 포함한 것임(단, DAC 합계에서는 제외)

資料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1997. Statistical Annex, A₇ - A₈

<表 3>을 보면 1995년에 21개의 DAC 會員國중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등 7개국은 ODA 金額이 前年度 比해 減少한 것을 볼 수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은 ODA 規模가 큰 나라들로서 이들 국가가 ODA가 감소한 영향에 따라 전체 ODA규모가 前年度에 比해 0.44% 감소된 588억 9천 4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또한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까지는 美國이 최대 ODA 提供國이었으나 1993년부터는 日本이 最大 ODA 提供國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1993년에 日本과 美國의 位置가 바뀐 것은 무엇보다도 非 ODA 債務의 免除에 대한 DAC 처리방침의 變更에 기인하는 것으로, 美國 ODA중 非 ODA 債務의 免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軍事目的의 債務에 대한 免除가 ODA에서 除外되었기 때문이다.⁷⁾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의 ODA 부진은 國別 GNP 對比 ODA 比重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DAC 회원인 21개국 중 호주, 벨기에, 필란드, 아일랜드, 네델란드 등 5개국만 GNP 對比 ODA比重이 1994년에 비해 增加 하였으며 캐나다, 英國, 美國 등이 큰폭으로 GNP 대비 ODA 比重이 하락되었다.

특히 덴마크는 1984년 이래 GNP 대비 ODA 比重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다가 1995년에 0.07%가 낮아진 ODA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DAC 회원국중 가장 모범적인 ODA 공여국임을 알 수 있다.⁸⁾

DAC는 1970年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ODA 規模를 GNP 對比 0.7%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勸告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遵守하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뿐이며 프랑스가 매년 0.6%의 규모에

7) 非 ODA 채무의 면제를 제외하면 이미 1991-1992년에도 日本의 ODA가 規模면에서 1 위를 차지하게 됨.

8) 덴마크는 GNP 대비 ODA 비중이 DAC 회원국중 규모가 가장 큰 모범적인 국가였음을 알 수 있는 <표4>참조.

서 1995년에 0.55%로 낮아졌으나 UN 勸告水準인 0.7%에 近接하고 있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AC 회원국의 ODA와 NGO로부터의 民間援助를 비교하면 年度別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1985년이래 民間援助는 ODA의 9.5-10% 선을 유지해 公的援助 및 民間援助의 사이에 規模면에서 10 : 1 수준의 비교적 안정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DAC 非 會員國의 ODA 규모

DAC 會員國이 아닌 국가중 ODA 提供國은 크게 4그룹으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OECD 회원국중 DAC 회원이 아닌 그리스, 아이슬랜드, 멕시코, 터키를 들 수 있으며 이들 국가중에는 <表 5>에서 보는 바와같이 터키와 그리스가 중요한 ODA 提供國이다.

둘째, 구소련 및 동구국가들은 1960-1970年代 초까지 DAC 非會員國중 매우 중요한 ODA 提供國이었으나 이제는 受援國으로 변하였다. 셋째, 아랍의 OPEC 국가들은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 초반에는 全世界 ODA의 4분의 1을 提供하였으나 그후 役割이 크게 약화되어 1990년에 다시 강화되었음에 불구하고 1995년 현재 이들국가들의 ODA가 全世界 ODA에서 점하는 比重은 1.06%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등 3개국만이 현재까지 ODA 提供國으로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중국, 인도 및 이스라엘 등도 ODA 提供國이다. 특히 이들 국가중 우리나라는 1996. 12월에 OECD에 加入된 國家로 1997년부터는 開途國의 分類에서 除外對象 國家이다.

DAC 회원국의 ODA 統計와는 달리 이들 非會員國의 ODA통계는 정확

히 集計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속에서도 구소련 및 동구권에서의 변화와 아랍국들의 ODA 감소로 인하여 DAC 非會員國의 ODA規模는 1980년대에 비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表 5> DAC 非會員國의 ODA推移

	1991	1992	1993	1994	1995
				(백만달러, %)	
체코			20	25	
그리스	43	55	90	122	152
아이슬랜드	8	5	7	6	
한국	57	77	112	140	116
				(0.04)	(0.03)
터키	104	185	260	66	96
					(0.07)
쿠웨이트	390	203	395	555	371
	(2.45)	(0.87)	(1.30)		
사우디아라비아	1704	783	549	317	192
	(1.48)	(0.65)	(0.43)		
아랍에미레이트	558	172	239	100	65
	(1.64)	(0.48)	(0.66)		
대만	125	106	61	79	92
	(0.07)	(0.05)	(0.03)		(0.03)
인도	81	86	25	28	
	(0.03)	(0.03)			
합 계	1366	1672	1758	1438	1084

註 : 금액은 순 제공액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GNP대비 ODA의 비중임(%)

資料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s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1997, Statistical Annex, A86, pp117-120.

3. 公的開發援助의 類型別 規模

가. ODA의 構造

ODA는 크게 國家 對 國家間 이루어지는 兩者間 ODA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 및 UN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多者間 ODA로 구분된다.

<表 6>에서 보는바와 같이 DAC 회원국의 ODA에서 兩者間 ODA가 多者間 ODA에 비해 훨씬 規模가 크다. DAC 회원국의 兩者間 ODA는 1980년에는 ODA의 64.8%, 1985년에는 73.7%를 차지하였고 1990년대 初에는 부침을 거듭하다 1995년에는 68.8%에 이르고 있다.

또한 ODA는 크게 無償援助와 有償援助로 大別되는데, 兩者間 ODA는 無償援助인 贈與와 有償援助인 借款으로 나뉜다. DAC 會員國의 경우 <表 6>에서 보는바와 같이 金額면에서 贈與가 借款에 비해 월등히 커 1980년이래 거의 대부분의 경우 兩者間 贈與는 ODA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였고 1995년에는 61.3%를 점하였다.

더욱이 국제기구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ODA는 贈與의 性格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DAC 회원국에서 有償援助가 차지하는 比重은 無償援助에 비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나. 兩者間 ODA 규모

規模면에서 가장 중요한 兩者間 贈與는 구체적으로 技術協力, 食糧援助, 비상재해구호, 채무면제에 대한 지원 및 ODA 집행과정에서 소요되는 行政費用 등의 형태를 띠고 있다. <表 6>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협력이다. 技術協力은 DAC 會員國 兩者間 ODA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980年代에는 兩者間 ODA의 기술협력이 20% 代 였으나 1990年代에는 3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바 기술협력이 兩者間 ODA 중 그 重要性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兩者間 贈與에서 또하나의 특징은 非常災害救護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 양자간 증여의 2.7%를 점하였던 비상재해구호의 비율은 1994년에는 9.8%, 1995년에는 8.47%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表 6> DAC 회원국 ODA 構造의 變化

(백만달러 : %)

	1980	1985	1992	1993	1994	1995
O D A	26,195 (100)	28,755 (100)	60,850 ^a (100)	56,498 (100)	59,156 (100)	58,894 (100)
I. 양자간 ODA	16,983 (64.8)	21,189 (73.7)	41,249 (67.7)	39,371 (69.7)	41,305 (69.8)	40,595 (68.8)
贈 與	12,968 (49.5)	17,026 (59.2)	32,913 ^a (54.0)	33,428 (59.2)	35,190 (59.5)	36,152 (61.3)
· 기술협력	4,804 (28.2)	5,748 (27.1)	13,594 (33.0)	12,985 (33.0)	12,855 (31.1)	14,311 (35.2)
· 식량원조	680	1,291	1,783	1,663	1,802	1,346
· 비상재해구조 ^b	353	602	2,586	3,250	3,468	3,062
· 채무면제	1,156	280	2,996	2,701	3,452	3,678
· 행정비	808	981	2,464	2,543	2,600	2,889
借 款	4,015 (15.3)	4,164 (14.5)	8,336 (13.7)	5,943 (10.5)	6,114 (10.3)	4,444 (7.5)
II. 다자간 ODA	9,212 (35.2)	7,566 (26.3)	19,601 (32.3)	17,127 (30.3)	17,851 (30.2)	18,299 (31.2)
U N	2,176	2,349	4,732	4,119	4,291	4,260
C E C	1,587	1,417	4,324	4,089	4,709	5,370
I D A	3,106	1,948	6,302	4,970	4,607	5,405
지역개발은행	1,641	1,203	2,403	2,497	2,598	1,301

註 : 괄호안의 숫자는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a) ODA外 부채중 채무면제는 제외

b) 비상식량원조는 제외

資料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1997. Statistical Annex, A₃-A₄

이는 최근 가뭄 및 홍수 등 자연재해 외에도 政治, 軍事的 충돌과 같은 人爲的 事態의 잦은 발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世界가 하나의 地球村化로 變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상재해구조의 增加는 실질적인 開發協力에 필요한 資金의 減

少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開途國의 開發協力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UN기구 중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ICEF(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및 WFP(World Food-Programme)등 긴급재난구호 관련 기구의 예산은 증대한데 반해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같이 보다 開發에 關聯된 機構의 財源은 감소하였다.

다. 多者間 ODA 규모

多者間 ODA를 擔當하는 國際機構는 크게 세계은행그룹, UN기구, 지역개발은행 및 EC 집행위원회 등 4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ODA規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世界銀行그룹이며, 그중 核心的인 機構가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이다. 低所得國의 開發 Project에 필요한 長期金融을 低利로 지원하기 위하여 設立된 IDA는 1995年 現在 DAC 회원국이 국제기구에 供與하는 ODA의 29.5%를 차지하고 있다.(表 7 참조)

UN 기구중 開發協力에서 重要な 役割을 擔當하는 것은 UNDP이며 UNDP는 특히 投資 이전의 조사사업에 특화하고 있다. 그리고 WFP, UNHCR 및 UNICEF 등이 開途國 開發協力を 위해 적극적으로 活動하고 있다. 그외 아프리카 개발은행 (AFDB : Afric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및 美洲開發銀行(IDB :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등의 지역개발은행들로 지역별로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으며, EC 각국의 兩者間 ODA와 별도로 EC 執行委員會도 ODA를 提供하고 있다.

<表 7> DAC 會員國으로부터의 國際機構에 주어지는 ODA(1995)

국제기구	금액(백만달러)	비중(%)
世界銀行	6004	32.8
I B R D	604	3.3
I D A	5405	29.5
地域開發銀行	1187	6.6
I D B	212	1.2
A D B	962	5.3
A D F ^{a)}	13	0.1
EC집행위원회	5370	29.3
E D F	2115	11.5
U N 기구	4260	23.3
U N D P	908	5.0
W F P	817	4.5
기 타	1473	8.0
합 계	18229	100

註 : a) African Development Fund(아프리카개발은행에 대한 출자포함)

IDB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EDF : European Development Fund

資料 :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DAC Report, 1997. Statistical Annex, A39-A40.

Ⅲ. 우리나라의 ODA 現況

1. 公的開發援助의 歷史

가. 開發援助의 受惠國

우리나라는 해방이후부터 開發援助의 도움을 받았으며 開發援助를 받은 국가중 가장 성공적인 事例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⁹⁾ 특히 1950年 중반부터 美國으로부터의 援助를 中心으로 한 韓國에 대한 원조는 資本財 및 消費財 수입에 필요한 外債를 提供함으로써 한국의 經濟發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1953년부터 1962년까지 10年間 輸入對比 援助의 平均比率은 71%였으며 援助額은 GNP의 8% 그리고 總投資의 거의 80%를 차지하였다. 한편 1950-1960年代에 韓國이 주요한 援助受惠國이었다는 점은 1960-61年 韓國이 DAC 전체 ODA의 4.5%를 차지하였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¹⁰⁾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1970년 5월에 체결된 AID원조 10만달러의 執行이 完了된 1977년까지 총 48억 달러의 無償援助를 받았다. 그중 兩者間 援助가 87.2%인 41.62억 달러에 달했으며, UN 및 其他 國際機關으로부터 공여

9) Krueger, A. O., Michalopoulos, C. and Ruttan, V. W., Aid and Development,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9, P.226 : Cassen, R. & Associates, Does Aid Work? : Report to on Intergovernmental Task Force, Second Edition, Oxford : Clarendon Press, 1994, P.277.

10) Kinn, Sooyon and Kinn Wan-Soon, Korea's Development Assistance : Performance, Prospects and Policy.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Institute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 Growth, 1992, pp.16-17 : EDCF Annual Report 1994,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Export - Import Bank of Korea, 1995. p.6.

받은 多者間 援助는 12.8%인 6.11억불에 불과 하였다. 形態別로는 源資材가 43.7%, 農産物이 25.2%로 주종을 이루었고 資本財가 9.9%, 그리고 UNDP와 콜롬보플랜에 의한 技術支援은 5.3%를 점하였다. 11)

우리나라는 無償援助外에도 世界銀行이 1962년에 첫 借款을 提供하였고 아시아 開發銀行도 1968년부터 우리나라에 援助를 開始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兩者間 援助는 대부분 1980年代初에 完了되었으며 世界銀行의 프로젝트 관련 借款은 構造調整이나 部門借款으로 바뀌었다. 12)

우리나라는 1991년까지도 5천 2백 7십만 달러의 ODA를 받았으나 1992년에는 그 規模가 2백 80만 달러로 축소되었고 1993년에는 독일 등 일부 국가 및 UNTA(UN Regular Programme of Technical Assistance)등 國際機構로부터의 ODA가 계속되었으나 財源의 純흐름 기준으로 3,480만 달러가 오히려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表 8> 우리나라에 대한 供與機關別 ODA

(단위 : 백만달러)

년 도	합 계	미 국				기 타	
		GARIOA	ECA/SEC	PL480	ICA/ACD	CRIK	UNRRA
1945-57	667.95	502.11	165.84				
1951-55	862.02		36.03		293/82	257.05	75.12
1956-60	1,493.44			157.72	1,288.47	0.31	46.94
1961-70	1,424.79			604.31	820.48		
1971-80	64.1			33.65	30.46		
계	4,512.31	502.11	201.87	795.68	2,433.23	457.36	122.06

자료 : 사공일, 「세계속의 한국경제」, 1993년 등

11) 지용기, 「한국의 개도국원조정책」, 한국국제협력단, 1995년 증보판, pp.35-37.

12) Jryegerm A, I, Michalopoulos, C, and Ruttan. V. W., Aid and Development, Baltimore and 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89. pp.231-233.

나. 開發援助의 供與國¹³⁾

우리나라는 여전히 受惠國 이면서도 1960年代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개발원조를 提供하기 始作하였다. 1963년에 最初로 USAID 援助資金에 의한 研修生受託訓練을 실시하였으며 1963년에는 우리 政府資金에 依하여 開途國 訓練生招請사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1967년에는 開途國에 專門家を 派遣하였으며 그외에도 주로 UN기구의 자금을 지원받아 開發援助를 實施하였으나 그 規模는 微微한 水準에 머물렀다. 그후 1977년에는 外務部의 주관하에 110만 달러 規模의 우리 機資材를 開途國에 처음으로 供與하였다.

1980年代 초부터 對開途國 援助事業은 大統領의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순방시 제기된 協力事業을 계기로 추진되는데, 1982년에 KDI가 開途國의 주요인사를 招請하여 우리나라의 開發經驗에 대한 敎育을 實施하는 國際 開發研鑽事業을 始作하였고 1984년에는 建設部에서 무상건설 기술 用役사업을, 勞動部에서는 職業訓練院 설립 支援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開發援助가 본격화 한 것은 1987년에 對外經濟協力基金(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이 創設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韓國輸出入銀行이 EDCF의 집행기관으로 지명되고 1989년에 첫 EDCF 借款이 집행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UNESCO 한국위원회 주관하에 韓國青年海外奉仕團이 設立되고 1990년에 4개국에 44名の 봉사단원이 最初로 파견된다.

13) 지용기, 「韓國의 開途國 援助 政策」, 한국국제협력단, 1995년 증보판, pp. 37-39 ; EDCF Annual Report 1994,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1995, pp.6-8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따른 개도국으로 부터의 開發援助 요청이 增大하고 또한 그동안 정부의 政府의 각소관 부처별로 實施되어 왔던 開發援助業務를 통합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1年 4월에 韓國國際協力團 (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創設되면서 우리나라 開發援助의 새로운 跳躍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2. 基本 政策方向

1960년대 중반부터 ODA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기본정책 방향이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의 대립이 되어있지 못한 상응에 있다. 1986년 12월 제정된 대외경제협력 기금법

3. 公的開發援助의 運用 體系¹⁴⁾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의 實施體制는 行政府의 담당부처와 政府機關이 各 各의 소관에 따라 원조업무를 分擔하고 있다. 행정기구로서는 財政經濟院이 원조정책의 수립과 實績의 통계작성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運用管理 및 援助對象事業에 對한 援助方針業務를 행하고, 外務部는 주로 無償援助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실시기관으로서는 兩者間 有償援助에 있어서는 韓國輸出入銀行이 財政經濟院을 管理·監督부처로하여 1987년부터 兩者間 有償協力인 對外經濟協力基金의 지원업무를 遂行하여 오고 있다. 양자간 無償援助는 그동안 여러 부처에 分散, 실시되어 왔으나, 1991년에 外務部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에 따라, 동 기관으로 통폐합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技術協力에 있어서 일부의 研修生招請事業은 敎育部, 總務處, 情報通信部, 勞動部에서 各各 韓國國際協力團과 別途로 行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연찬사업(IDEP)은 아직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계속 실시되고 있는 등, 技術協力業務는 單一機關으로 완전히 統合되고 있지는 않다.

14) 韓國國際協力團, 「1993年度韓國國際協力團年報」, 1994, pp.17-22 ; EDCF Annual Report 1994,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1995. pp.46-49 ; 經濟企劃院, 「1992年度開途國經濟協力報告書」, 1993. 7, p.26 ; 韓國國際協力團, 「'94 KOICA 協力實績統計」, 1995. 6, p.2 참조.

<圖 4> 한국개발원조 형태와 실시체제

公 的 開 發 援 助	형 태			실시기관	소관부처	
	兩者間 援助	무상원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			프로젝트형사업 기자재공여
			기술협력	연수생초청,전문가파견, 청년봉사단파견 개발조사 (F/S) 등		
			기 타	재난구호, 식량원조 NGO 지원 등		
	多者間 援助	유상원조	대외경제 협력기금	개발사업, 기자재 전대, 물자차관 등	한국수출입 은행	재경원
		국제기구 분담금			외무부	외무부 등
		국제기구 출자금			한국은행	재경원 등

한편, 多國間協力인 국제기관으로의 출자·출연(분담금)에 있어 국제개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는 주로 財政經濟院과 韓國銀行이, UN 제기관 등에 대한 출연은 주로 外務部와 科學技術處 등이 실시기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실시체제는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과 같은 외무성전담형이나, 프랑스 등의 경제성전담형의 일원적 체제는 아니고, 일본, 독일의 실시체제와 유사한 2원적 혼합형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援助業務의 範圍 및 內容은 부분적으로 日本의 制度를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

<圖 4>에서 보는바와 같이 兩者間 有償援助의 경우 對外經濟協力基金으로부터의 借款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財政經濟院 소관하에 韓國輸出入銀行이 그 執行을 擔當하고 있다.

對外經濟協力基金은 (EDCF) 開發途上에 있는 國家의 産業發展 및 經濟安定을 支援하고 韓國과 이들 國家와의 經濟交流를 증진하는 등의 對外經濟協力을 促進하기 위한 目的으로 1987年 6月 1日에 設置되었다.¹⁵⁾

基金은 韓國政府가 1987年 설립과 同時 300억원을 출자한후 政府出資金

15) 對外經濟協力基金法(經濟企劃院, 「開途國經濟協力法全集」, 1989. Ⅱ, p.45).

혹은 特殊供入金의 형태로 매년 持續적으로 擴大되고 있으며 여기에 基金運用純利益까지 포함하여 1993年來 現在 總 7,972억원에 이르고 있다.(<表 14> 참조)

<表 14> EDCF 基金造成現況

(단위 : 억원)

	1987-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
정부출연금	1,000	100	100	-	199	850	1,200	3,449	43.2
재정투융차입금	400	-	500	100	100	200	673	1,973	24.7
기금운용수익	149	257	395	641	332	336	440	2,550	32.1
계	1,549	357	995	741	631	1,386	2,313	7,972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한편 多者間 援助중 世界銀行, 아시아開發銀行 등 國際開發金融機關에 對한 出資는 財政經濟院 소관이며 UN機構를 국제기구에 대한 分擔金을 주로 外務부에서 맡고 있다.

4. 우리나라 ODA의 構造

가. ODA의 동향

나. 전체 ODA 규모

우리나라 ODA 規模는 <表 15>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1年度에 57.48 백만불에서 1994年度에 140.22 백만불로 매년 急增勢를 보여왔으나 1995년도에는 115.99백만불로 1994년 對比 17.3%가 감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1995年度 GNP 4517억불로 추정할 때 GNP 대비한 ODA는 0.03%로 DAC 勸告基準인 0.7% 보다는 현저히 낮은 水準이며 1995년도 DAC 회원국 平均水準인 0.27% 보다는 9배나 낮은 水準이다.

1995年度 ODA에서 兩者間 ODA 및 多者間 ODA가 점하는 比重은 各各 61.6%와 38.4% 兩者間 원조가 높은 비중의 ODA構造를 알 수 있다.

1995년도 양자간 ODA중에서 贈與부분이 70.1%를 차지하여 開發借款의 非贈與 ODA 29.9% 보다는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자間 贈與중에서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인 無償援助(32.3%), 技術協力(33.7%) 및 行政費用(28.9%)이 가장 큰 構成要素로 이들 셋이 兩者間 贈與를 거의 비슷한 水準에서 나누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非贈與 ODA는 1991년에 6.48 백만불에서 1995년에는 1995년도 21.35 백만불로 절대금액의 伸長勢를 보이고 있으나 기간중 매년 浮沈을 하고 있으며 1995年度는 1993년에 비해 21.2% 減少하고 1995년에는 1994년에 비해 1.2%가 減少하고 있다.

특히 兩者間 ODA중 韓國國際協力團(KOICA)이 점하고 있는 兩者率은 1995年度에 兩者間 ODA 71.46 백만불중 49.23 백만불로 68.9%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ODA 115.99 백만불 對比 42.4%의 ODA를 차지하고 있다. 多者間 ODA는 크게 多者間 機構에 대한 贈與와 多者間 機構에 대한 出資 및 其他(讓許性 借款 포함)으로 分類될 수 있는데 1995年 우리나라의 多者間 ODA는 國際機構 出資 및 其他에 66.7%, 國際機構贈與에 33.3%를 나타나고 있다.

<表 15> 우리나라의 ODA 現況

(단위 : 백만불, %)

구 분	'91		'92		'93		'94		'95	
정부개발원조 (ODA)(증가율:%)	57.48	100.0	76.80	100.0	111.56	100.0	140.22	100.0	115.99	100.0
			(33.6)		(45.3)		(25.7)		(△17.3)	
1. 양자간협력 (증가율:%)	31.52	54.8	45.22	58.9	60.12	53.9	60.07	42.8	71.46	61.6
			(43.5)		(33.0)		(△0.1)		(19.0)	
가. 무상협력 (증가율:%)	25.04	43.6	30.99	40.4	32.68	29.3	38.45	27.4	50.11	43.2
			(23.8)		(5.5)		(17.7)		(30.3)	
° 무상원조 (증가율:%)	9.42	16.4	8.42	11.0	9.53	8.5	13.04	9.3	16.21	14.0
			(△10.6)		(13.2)		(36.8)		(24.3)	
° 기술협력 (증가율:%)	6.19	10.8	8.53	11.1	10.51	9.4	12.28	8.8	16.89	14.6
			(37.8)		(23.2)		(16.8)		(37.5)	
° 식량원조 (증가율:%)	-	-	-	-	-	-	-	-	-	-
° 재난구조 (증가율:%)	0.9	1.6	1.0	1.3	0.5	0.4	0.6	0.4	0.5	0.4
			(11.1)		(△50.0)		(20.0)		(△16.7)	
° 행정비용 (증가율:%)	7.60	13.2	11.57	15.1	11.15	1.0	11.36	8.1	14.49	12.5
			(52.2)		(△3.6)		(1.9)		(27.6)	
° 기 타	0.93	1.6	1.47	1.9	0.99	0.9	1.17	0.8	2.02	1.7
			(58.1)		(△32.7)		(18.2)		(72.6)	
나. 유상협력 (EDCF)(증가율:%)	6.48	11.3	14.23	18.5	27.4	24.6	21.62	15.4	21.35	18.4
			(119.6)		(92.8)		(△21.2)		(△1.2)	
KOICA (양자비율:%)	22.80	39.7	29.38	38.3	30.45	27.3	38.30	27.3	49.23	42.4
			(28.9)		(3.4)		(26.0)		(28.4)	
(증감율:%)										
2. 다가간협력 (증가율:%)	25.96	45.2	31.58	41.1	51.44	46.1	80.15	57.2	44.53	38.4
			(21.6)		(62.9)		(55.8)		(△44.4)	
° 국제기구증여 (증가율:%)	5.78	10.1	8.01	10.4	10.25	9.2	12.88	9.2	14.82	12.8
			(38.6)		(28.0)		(25.7)		(15.1)	
° 국제기구출자 (증가율:%)	11.82	20.6	21.47	28.0	25.67	23.0	25.65	18.3	22.68	19.6
			(81.6)		(19.6)		(△0.1)		(△11.6)	
° 기 타	8.36	14.5	2.10	2.7	15.52	13.9	41.62	29.7	7.03	6.1
			(△74.9)		(639.0)		(168.2)		(△83.1)	
GNP(억\$)	2,920		3,057		3,308		3,780		4,517	
ODA/GNP(%)	0.02		0.03		0.03		0.04		0.03	
국민1인당 ODA부담액\$)	1.3		1.7		2.5		3.1		2.6	
양자:다자(%)	55:45		59:41		54:46		43:57		62:38	
유상:무상(%) (전체ODA)	32:68		47:53		48:52		34:66		38:62	
유상:무상(%) (양자간 ODA)	21:79		31:69		46:54		36:64		30:70	

註 : 1. 재경원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2. 식량원조실적 : '92(62천\$), '94(20천\$)이 포함.

資料 : 財政經濟院 ; KOICA.

5. 공적 개발원조의 유형별 규모

가. 兩者間 ODA 규모

1) 양자간 ODA 규모

1995年 양자간 무상원조는 5천 11만 달러에 달했고 그중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의 비중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技術協力 (33.7%) 및 行政費用 (28.9%) 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表 12> 참조)

<表 16>은 1994年度 韓國의 집행기관별 양자간 無償援助 實績을 보면 1994년중 KOICA는 우리나라兩者間 ODA의 92.5%를 차지하였으며 1994년에 承認된 兩者間無償 ODA의 89.5%를 실시하였다.

<表 16> 1994年度 韓國의 兩者間無償 ODA

(백만달러)

	執行機關	執行額	承認額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KOICA	13.64	13.64
技術協力	KOICA	10.924	10.924
	과기처	0.533	1.143
	정보통신부	0.618	0.618
	KDI	0.105	0.328
	농수산부	0.056	0.056
	교육부	0.041	0.041
	건설교통부		0.456
	소 계	12.28	13.57
災難構造	KOICA	0.57	0.57
開發認識提高	KOICA	0.246	0.246
行政費用	KOICA	9.83	9.83
	EDCF	1.40	1.40
	KDI	0.133	0.133
	소 계	11.36	11.36
其 他	KOICA	0.348	0.348
合 計		38.45	39.74

資料 : 이창재 「우리나라 公的開發援助」, 1995.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8.
그리고 1994年중 行政費用을 除外한 兩者間無償援助 事業費에 KOICA가 점하는 比重은 더욱 높아 執行 基準으로는 95.0% 承認額 基準으로는 93.4%를 차지하였다. KOICA는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 재난구호 및 개발인식제고사업 등의 전체와 기술협력의 89.0를 시행함으로써 韓國兩者間 無償援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1994년중 KOICA의 技術協力에 참여한 부처는 정보통신부, 과기처, KDI, 농수산부, 및 교통부 등이며 건설교통부는 執行實績은 없으나 45만 5천달러 상당의 ODA를 승인하였다.

KOICA의 1995년 ODA실적을 分析해 보면¹⁶⁾ 贈與性 援助(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원조)의 경우 機資材 供與와 프르젝트형 사업의 비율이 각각 28.4% 및 27.9%로 되어 있어 여전히 機資材供與의 比重이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프로젝트형 사업비중의 増大推移가 1995年度에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技術協力에서는 청년봉사단 (9.2%) 의료단(5.1%), 태권도사범(1.8%), 국제협력요원(1.4%) 파견 등 特別目的支援이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開發調査(8.7%) 및 研修生招請(12.3%) 등 이들 세사업이 技術協력을 거의 三等分하고 있다.(<表 17>참조)

<表 17> 1995年度 한국국제협력단 ODA實績

(단위 : 백만원(천불))

구 분 사업명	지원 국가	지원금액	점유율
기자재공여 및 재난구호	114국 9국제기구	7,895(10,239)	28.4
프로젝트형 사업	30국 43건	7,742(10,040)	27.9
개발조사	6국 12건	2,420(3,138)	8.7
연수생초청	92국 870명	3,420(4,435)	12.3

전문가 파견	42국 4국제기구 77명	964(1,250)	3.5
해외봉사단원 파견	15국 188명	2,561(3,322)	9.2
의료단원 파견	19국 22명	1,403(1,819)	5.1
태권도사범 파견	12국 13명	486(630)	1.8
국제협력요원 파견	13국 28명	384(499)	1.4
민간단체(NGO)지원	19기관	489(635)	1.6
계	139국 31기구	27,764(36,000)	100.0

資料 : 한국국제협력단, 「1995년 한국국제협력단연보」, 1996. 4, p.21.

16) KOICA 실적에는 러시아 및 동구국가에 대한 支援과 같이 일부 ODA로 분리될 수 없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KOICA 전체실적과 우리나라 ODA 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兩者間 有償 ODA

우리나라 兩者間 有償援助의 財源인 EDCF 基金은 <表 14>에서 보는 바와같이 1995年度에 7,79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政府出損金은 43.2%인 3,449억원, 財特借入金은 24.7%인 19,731억원을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인 32.1%인 2,550억원은 基金運用純利益으로 구성되어 있다.

<表 18>에서 보는 바와같이 1987년부터 1995年末까지 총 有償 ODA에 대한 支援方針은 41件으로 (실제는 44건이나 비ODA 실적3건은 제외) 4,721억원이 결정되었는데 이미 계약체결 된것은 28건 3,349억원이며 실제 支出完了 된 有償 ODA는 1,417억원으로 承認對比 30%, 차관계약체결 對比 42.3%가 支出되었다. 1995年度에는 12건, 1,490억원의 새로운 借款에 대한 支援方針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1994년의 지원결정방침 11건 1,029억원보다 44.9% 增加된 것이다. 이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교통, 식수개발, 발전소, 통신시설 등 경제하부구조 건설을 위한 것이다.

1995年度の 12건 사업중 代表的 有償 ODA 事業으로는 中國의 Hunan Province

Telecommunication Project로 230.7억원의 事業을 들 수 있다.

<表 18> EDCF의 有償 ODA 推移

단위 : 억원(건)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계
승인	(2) 179			(4) 232	(6) 580	(6) 706	(2) 505	(11) 1,029	(12) 1,490	(41) 4,721
·차관계약 체결			(2) 179		(4) 413	(3) 236	(6) 779	(2) 505	(11) 1,237	(28) 3,349
지출			12	64	49	112	562	302	345	1,417

註 : 92년의 폴란드지원 1件 (승인기준 382억원), 93년의 루마니아 지원

1건(395억원) 95년의 헝가리 지원 1건(190억원) 포함되었으며 공적
개발원조실적에서는 제외 됨. 승인취소된 3건 제외.

資料 : 한국수출입은행, Annual Report 1996.

1995年末 地域別 兩者間 有償 ODA 實績을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이 전체
의 57.8%로 차관이 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9> 참조) 그리고 年度別 兩者間 有償 ODA의 推移를 보면 아프
리카 지역에 유상 ODA의 지원이 급신장 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1991
년 이후 지속적으로 兩者間 有償 ODA가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9> 1995년말 地域別 EDCF ODA 實績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인현황		집행현황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아시아	273,029	57.8%	34,012	23.5%
아프리카	62,805	13.3%	36,877	25.5%
중남미	11,467	2.4%	-	0.0%
중동	7,235	1.5%	5,855	4.0%
대양주	9,080	1.9%	-	0.0%
유럽	108,446	23.0%	67,997	47.0%
계	472,062	100.0%	144,741	100.0%

註 : 공적개발원조가 아닌 공공원조포함(승인 및 집행 각각 968억원 645억원)

資料 : 한국수출입은행

나. 多者間 ODA 규모

1) 國際機構에의 贈與

우리나라의 국제기구에 대한 贈與는 <表 20>에서 보는바와 같이1987年

이래 매년 지속적인 増加를 보이고 있다. 1987년에 3백만달러이던 것이 1995年度에는 5배가 増加된 14.8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국제기구에의 贈與에 있어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UNDP(UN Development Programme)로 1980年代 후반에는 40%이상을 集中贈與 되었으며 1990年代에는 25% 水準으로 集中度가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20개 정도의 機構를 考慮할 때 UNDP에 대한 集中度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또한 국제기구에의 贈與對象機構중 WHO도 重要な 支援對象 機構이다.

<表 20> 우리나라의 援助對象別多者國間援助推移

(단위 : 백만달러)

	'87	'88	'89	'90	'91	'92	'93	'94	'95
UN기구 (UNDP)	2.62 (1.23)	2.95 (1.24)	3.10 (1.12)	4.05 (1.16)	4.58 (1.13)	6.29 (2.06)	8.38 (1.59)	9.88 (2.54)	11.0 (2.48)
세계은행그룹 (IDA)	7.95 (6.19)	25.90 (6.97)	8.17 (7.58)	29.89 (11.50)	11.10 (11.10)	10.43 (10.43)	14.82 (13.42)	14.80 (13.42)	15.37 (13.98)
지역개발은행 (ADF)	10.93 (1.25)	2.38 (1.74)	8.08 (1.25)	14.35 (1.25)	0.7 (-)	11.05 (3.75)	10.84 (3.75)	10.84 (3.75)	7.31 (3.75)
(AfDF)	(3.73)	(-)	(6.19)	(12.37)	(-)	(7.30)	(7.09)	(7.09)	(-)
기 타 (IMF)	0.59 (-)	0.67	9.41 (8.77)	0.62 (-)	9.56 (8.36)	3.83 (2.10)	17.40 (15.52)	44.62 (41.62)	10.85 (7.03)
합 계	22.08	31.90	28.75	48.91	25.96	31.59	51.44	80.15	44.53
증 여	3.21	3.62	3.74	4.67	5.78	8.01	10.25	12.88	14.82
출 자	18.88	28.28	16.24	44.24	11.82	21.47	25.67	26.54	22.68
용 자	-	-	8.77	8.77	8.36	2.10	15.52	41.62	7.03

資料 : 외무부

우리나라는 국제환경기구 등에의 新規加入 등으로 向後 國際機構에의 贈與 規模가 增大할 것으로 예상되며 兩者間 ODA의 規模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多者間 ODA 比重은 당분간 現水準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2) 國際金融機關에의 出資 및 類似贈與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는 1987년이래 부침을 계속하다 1993-94년은 연속 增加되다가 1995년도에는 前年度보다 14.5% 減少된 22.68 백만불이 출자되었다. 기간중 1990년도는 1989년에 비해 무려 272%가 增加되었으나 다음년도인 1991년에는 다시 374%로 크게 減少하는 출자율을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는 世界銀行 그룹에 대한 比重이 높으며 세계은행 그룹중에서는 IDA에 대한 출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IBRD에 대한 출자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世界銀行 그룹에 대한 출자도 30백만달러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11-15백만 달러 정도의 출자를 행하고 있다.

한편 地域開發銀行에 대한 出資 및 出捐도 꾸준히 進行되고 있는데 주요 出損대상으로는 아시아 開發銀行 特別基金(Asia Development Bank Special Fund)라 아프리카 開發基金(Asia Development Fund)이 있으며 아시아 개발은행에의 出資도 일부이다. 기타 國際機構에의 類似贈與로는 IMF에의 融資 등이 있으며 1994년도 에는 41.6 백만달러의 大規模 IMF의 ESAF(구조조정금융)에 대한 融資¹⁷⁾가 있었으나 1995年度에는 7백만 달러로 급격히 融資가 減少되었음을 알 수 있다.(〈表 21〉 참조)

17) 1994년의 경우에는 IMF의 ESAF(구조조정금융)에 대한 용자가 큰폭으로 증가하여 多國間援助가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되므로써 양자 對 다자의 비율이 42.8% 對 57.2%에 이르렀으나 1995년도에는 多國間援助가 前年度 水準을 維持함으로써 전체 원조에 있어서 兩者 對 多者의 比率이 61.6% 對 38.4%로 급감하였다.

IV. 우리나라의 ODA 규모의 問題點

1. 政策의 미비

가. 基本政策의 미비

한나라의 ODA 政策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援助國들은 개별원조를 國家의 重要的 政策의 하나로써 戰略적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開發援助의 전략적 推進이란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理念, 目的 및 支援國家나 支援分野 등에 대한 基本政策 方向의 樹立을 통한 體系的인 事業推進을 말한다.¹⁸⁾

「ODA 關聯한 基本政策이라 함은 ODA 정책의 哲學 및 基本原則 및 이를 이루기위한 ODA의 形態, 重點分野, 主要對象地域 및 規模 등을 말한다.¹⁹⁾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ODA 關聯한 綜合的이고도 體系的인 ODA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對外 經濟協力 基金法에 의거 「대외경제협력 기금」의 設立根據에서 “開途國에 대한 産業發展 및 經濟安定支援, 經濟交流促進 및 經濟協力促進”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거 「韓國國際協力團」의 設立根據에서 “우호협력단체 및 상호교류증진, 경제사회발전지원, 국제협력의 증진”과 외무부의 「대외무상원조업무처리규정」에서 “外交關係를 위시해 通商關係와 人道的 고려 중시” 등 公的開發援助 事業遂行機關別로 事業目的에서 폭넓은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開發援助를 수행하는 國

18) 지용기 「韓國의 開途國援助政策」 한국국제협력단, 1995년증보판. p. 98..

19) 이창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10 p.120.

家로서의 基本政策이라고는 할 수 없다.

ODA의 공식적인 원칙은 “開途國의 經濟發展 및 福利增進”이나 그이면에는 世界 各 ODA 供與國들은 外交的, 軍事的, 經濟的 目的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存在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DAC는 ODA를 供與하는 나라들의 ODA 基本政策과는 關係없이 ODA 執行實績을 근거로 하여 評價하고 있다. 아무리 ODA의 基本原則에 부응하고 自國의 ODA 理念 및 基本政策이 매우 理想的이라 하더라도 그 執行實績이 外交的, 軍事的 또는 經濟的 利益추구에 依據한 ODA가 집행된다거나 世界銀行의 開途國名單中 最貧國이나 低所得國에 對한 ODA를 기피한다면 이러한 國家의 ODA의 政策은 DAC나 開途國으로 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ODA의 基本政策에 對한 重要性은 그나라의 GNP 對比한 적정규모의 ODA의 量적인 면과 質적인 면 그리고 重點支援分野 및 重點支援 國家의 選定 등으로 要約할 수 있으며 마땅히 基本정책 수립단계에서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ODA의 效率性を 根本적으로 提高시킬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행정편의상 ODA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外交的 手段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ODA는 일관성도 결여되고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1996年 12月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의 國際的 位相을고려하고 ODA의 규모증대가 불가피한 現實과 머지않은 장래에 DAC의 會員國 加入을 예상해 볼 때 ODA의 基本政策 樹立은 時急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나. 中長期 ODA 事業計劃의 不在

우리나라 ODA 사업은 基本政策의 未樹立은 물론 中長期 ODA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않은 실정이다. 이는 ODA 사업을 편의적으로 적당하게 시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ODA 사업의 ODA규모를 보면 정책적인 中長期 計劃이 없다보니 前年度 ODA 對比하여 적당히 어떤기준 없이 ODA관련 예산을 편성운영하여 옴으로써 우리의 經濟規模와 어울리지 않는 ODA 規模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多幸스러운 것은 ODA의 擴大는 불가피한 現實認識 아래 매년 ODA가 增額되고 있는 것은 多幸이랄수 있겠으나 보다 合理的인 OECD 會員國으로서의 우리나라 位置를 고려한 政策樹立이 절실하다 하겠다. DAC 회원국이 1995년에 밝힌 바 있는 政策方向에서 “開途國에 대한 經濟協力은 未來에 대한 投資”라는 의미를 깊이 認識하고 資源의 貧國인 우리나라로서는 資源의 確保라는 次元높은 政策方向에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豫測可能한 中長期 ODA 사업계획의 時急한 作成이 要한다 하겠다.

우리나라 兩者間 ODA를 代表할 수 있는 有償 ODA의 專担機關인 EDCF 基金設立運營이 創立 10年을 맞이하고 있고 無償 ODA의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IOCA)이 創立 6年째를 넘고있는 지금까지도 中長期 ODA 事業計劃의 不在라는 사실은 政策의 不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변화 무쌍한 對內外 환경적 要素를 감안하더라도 最小限 우리나라가 世界的 關心事인 “開途國의 經濟成長 및 福利增進”에 대한 UN·국제기구 및 受援國에 信賴를 줄수 있고 우리나라 OAD 사업의 전망을 예측하고, 事前에 對備할 수 있도록 우리 實情에 알맞는 中長期 ODA 事業計劃의 作成이 있어야 하겠다.

다. ODA 政策수립 및 집행기관의 분산

2. 公的開發援助의 量과 質 低調

가. ODA의 規模

우리나라는 1996年 12月 OECD에 加入하므로써 公的開發援助 提供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OECD에 加入했다고 해서 自動적으로 DAC 會員國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公的開發援助規模를 확대하여야 하는 強制的인 義務사항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UN과 開發國은 先進國에 對해서 GNP의 0.7%를 公的開發援助로 支援할 것을 勸告하고 있으며 DAC를 中心으로 한 先進國들도 援助分擔 차원에서 DAC 가입에 關係없이 公的開發援助 規模확대를 要求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5年 現在 GNP 對比한 ODA의 比率은 0.03%로 UN 및 DAC 권고기준인 GNP 대비한 ODA 비율 0.7%의 23분의1에 해당되는 매우 저조한 ODA 水準이며 1995年度 DAC 會員國의 GNP 對比한 ODA 平均水準인 0.27%의 9분의 1로 매우 낮은 水準이다.

또한 1995年度 DAC 회원국중 最低水準인 美國의 0.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水準이며 1994年 基準 1인당 GNP가 우리나라²⁰⁾ 보다 크게 낮은 OECD 會員國이며 非 DAC國인 터키²¹⁾에 比해서도 훨씬 낮은 水準이다.

또한 일본(1994년) 및 핀란드(1969년)가 OECD 가입시 GNP 대비 ODA 비율인 0.14% 보다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20) 1994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8,531달러임(부표 3 참조).

21) Turkey는 OECD 회원국이나 DAC에는 가입되지 않았으며 1994年度 1인당 GDP는 2,147 달러이며(부표 2 참조), 1995년에는 GNP 대비 0.07%의 ODA를 실시하였다.(表 5 참조).

이와같이 國際勸告와 主要先進國의 ODA 實績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規模는 매우 미흡하다. OECD 會員國으로서 우리의 經濟力에 걸맞는 水準까지 公的開發援助를 점차적으로 擴大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나. ODA 의 質

1995年度를 基準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ODA의 質에 있어서 총 ODA에 있어 贈與比重이 DAC 平均 78.6% 對比 29.1%로 贈與比重이 49.5%가 낮고 兩者間 ODA에 있어서도 DAC 平均(69.7%)對比 23.0%로 46.7%가 낮으며(<表 24>참조) 兩者 ODA 對 多者 ODA 비율이 62對 38로 DAC會員國 平均 68.8對 31.2와 比較 해 볼 때 兩者의 비율이 6.8% 높은 수준이나 兩者間 ODA중 有償 ODA와 無償 ODA는 30對 70으로 DAC 會員國 平均 10.9對 89.1에 比하여 無償 ODA가 19.1% 낮은 水準으로 우리나라가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指摘되고 있다. (<表 15>참조)

EDCF 基金이 1995年末 現在 7,972 억원이 造成되었음에도 承認기준 4,721억원 차관계약 체결 3,349억원으로 각각 59.2%와 42.0%로 부진한 것은 借款의 金融條件이 日本 등 餘他國과 國際機構에 比해 金融條件이 개도국 입장에서는 不利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兩者間 ODA 사업은 대부분 연계(Tied)되어 있기 때문에 DAC 회원국 平均 비연계(Untied) ODA의 비중 47.3%, 부분적연계(Partially tied) ODA 2.4%, 연계(Tied) ODA 22.1%를 감안할 때 ODA의 連繫性이 ODA 質면에서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問題點으로 指摘될 수 있다.(<表 9 >참조)

最近 우리나라 ODA 資金은 1992년 0.77억불, 1993년 1.11억불, 1994년 1.4억불, 1995년 1.16억불로 小規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每年 130여

국가에 分散供與함으로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며 效果的인 사업의 추진을 期待하기 어려웠다.

1995년에는 兩者間 ODA를 무려 143개 국가에 支援함으로써 1국당 약 50만불이 지원되었으나 借款공여 除外時 兩者間 ODA중 無償 ODA는 1국당 약 3억원(37만불)수준으로 1992년의 日本 83억원의 3.6% 水準에 불과하므로 ODA의 質을 더욱 낮게하고 있다.

<表 24> 우리나라와 DAC 會員國과의 援助의 質 比較1)

(단위 : %)

구 분	증여비중		증 여 율			2국간 차관조건		
	총 ODA	2국간 ODA	총ODA (권고수준:86%) ⁴⁾	최빈개도국 (권고수준:90%)	2국간차관	상환기간 (년)	거치기간 (년)	금리(연율)
한국 ²⁾	29.1	23.0	63.5	100.0	48.5	20.9	5.4	3.3
DAC평균 ³⁾	78.6	69.7	90.8	98.6	63.3	28.0	9.0	2.1
호주	100.0	100.0	100.0	100.0	-	-	-	-
오스트리아	76.8	67.8	89.5	96.2	50.4	24.0	7.0	2.9
벨기에	96.8	94.0	99.5	99.8	81.4	30.0	11.0	...
캐나다	94.5	91.8	99.4	100.0	90.3	40.0	15.0	...
덴마크	99.7	99.5	100.0	100.0	-	-	-	-
핀란드	98.7	97.5	99.0	100.0	26.7	37.0	2.0	6.4
프랑스	81.8	75.4	91.8	...	54.4	24.0	9.0	2.9
독일	79.9	68.2	91.4	99.8	57.4	29.0	9.0	2.6
아일랜드	100.0	100.0	100.0	100.0	-	-	-	-
이태리	91.3	73.2	97.4	100.0	70.6	27.0	11.0	1.1
일본	48.8	36.9	82.3	97.2	65.4	29.0	9.0	2.0
룩셈부르크	100.0	100.0	100.0	100.0	-	-	-	-
네덜란드	99.8	99.6	99.7	100.0	48.9	25.0	7.0	3.5
뉴질랜드	100.0	100.0	100.0	100.0	-	-	-	-
노르웨이	99.3	98.9	99.2	99.9	34.6	4.0	-	-
포르투갈	100.0	100.0	100.0	98.7	45.3	-	-	-
스페인	71.1	49.8	92.1	...	73.4	31.0	11.0	1.0
스웨덴	99.9	99.8	100.0	100.0	-	-	-	-
스위스	100.0	100.0	100.0	100.0	-	-	-	-
영국	97.6	95.6	97.1	100.0	...	...	...	...
미국	98.1	97.6	97.5	100.0	57.6	27.0	7.0	2.7

註 : 1) 승인기준

2) '94-'95평균실적

3) '94-'95평균실적

4) DAC에서 제시하는 기준(norm)은 86%이지만, GNP대비 ODA비율이 DAC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의 경우, 이 수준을 넘어서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이에 따라 '94년 실적 기준으로는 이태리, 뉴질랜드, 포르투갈과 미국이 동 기준을 충족한 국가에서 배제됨.

資料 : DAC Annual Report 1996, OECD, 1997.

3. ODA 규모증대의 제약

가. IMF 체제의 경제성장

나. 국가안보

V.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적정 ODA규모

1. 적정 ODA 규모

2. 적정 유형별 ODA 규모

‘97 연구보고서 발간

당 연구조사실에서는 ‘97년 연구보고서로 준비한
김채형 선임연구원의 “남남협력의 개념” 보고서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8. 1. 5

연 구 조 사 실